



무주군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성료

무주소방서와 무주의용소방대는 지난 27일 무주드너타운... 무주소방서와 무주의용소방대 연합회가 주관하고 무주군이 후원한 이번 행사는 개인안전장비 착용·릴레이와 단체줄넘기 등 2개 종목...



순창소방서, 생물테러 대비·대응 합동 훈련 실시

순창소방서(서장 박덕규)는 지난 26일 순창군보건의료원 3층 대회의실에서 순창소방서 등 유관기관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물테러 대비·대응을 위한 화학 보호복 착용 시연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자유총연맹 남원지회,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위령제

한국자유총연맹 남원지회(지회장 장재경)는 지난 27일, 광한루원 내 충혼탑에서 제43회 자유수호 희생자 위령제를 지냈다. 위령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를 위해 공신주의에 항거하다 희생된 민간인 호국영령 추모를 위해 매년 시행하고 있다.

제12회 무주군 청소년 문화축제 '꿈'

청소년의 날 행사로 치러져 더욱 알차... 체험·이벤트·공연 등 다채롭게 열려

무주군은 지난 28일 무주청소년수련관에서 '제12회 무주군 청소년 문화축제 '꿈' & 청소년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무주청소년수련관(관장 김주형)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활성화한다는 취지에서 마련한 것으로...



의 의미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어진 생백합청소년문화제에서는 춤과 노래, 밴드 등으로 본선에 진출한 10개 팀의 경연 무대가 펼쳐졌으며 무주청소년수련관 그룹시운드와 무주군가족센터 태권댄스팀이 축하 무대를 선사해 큰 박수를 받았다.

고창농기센터, 우리쌀 소비 촉진 위한 '쌀빵 만들기' 한창

고창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쌀빵 만들기 교육'이 한창이다. 이번 교육과정은 쌀 소비 확대와 쌀의 영양적 가치를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초보자도 집에서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소금빵, 베이글 등 6종의 빵을 직접 만들어 보는 과정으로 편성되었다.



한편, 고창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오는 11월 농업인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쌀 빵 시식회와 나눔 행사를 통해 가루쌀의 소비 촉진과 우수성을 홍보할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진안·무주·금산, 3군 3면 만남의 날 '성황'

진안군 용담면(면장 조영희)은 지난 26일 용담면 체련공원에서 인근 지역인 무주 부남면(면장 박금규), 금산 남일면(면장 박광의)과 함께하는 '3군 3면 만남의 날' 행사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 올해로 27회째인 '3군 3면 만남의 날' 행사는 진안군 용담면과 동쪽으로 인접한 무주군 부남면, 북쪽으로 맞닿은 금산군 남일면 등 3군 3개면이 1992년부터 개최지를 번갈아가며 개최하고 있다.



남원의용소방대, 지역 안전 파수꾼 역할 확대

남원소방서(서장 소재실)는 남원의용소방대연합회가 각종 재난현장 및 지역축제에서 활약하며 지역 안전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지난 27일 전했다. 연합회는 남원 세계드론제전에서 40명의 인원을 동원해 화재 예방순찰 및 소방안전 체험장을 운영했으며, 문화재야행 낙화놀이에서도 90명을 동원해 안전요원으로 활약하며 안전한 지역행사 만들기에 기여했다.

김제 청하면, 동절기 수급자 가정방문 실시

김제시 청하면(면장 양유미)이 이달 19일부터 12월까지 28개 마을 기초생활수급자 129세대 177명 가구의 생활실태 전반에 관한 조사 및 복지욕구 파악 등 맞춤형 서비스 연계 지원을 위한 동절기 수급자 가정방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기초생활수급자 주소지 거주 여부, 장기입원, 주거상태, 복지욕구 파악 및 생활실태 전반에 관한 조사로 청하면장과 민원복지팀에서 2인 1조로 구성되어 기초생활수급자 세대를 방문·확인하고 수급 가정의 애로사항을 청취 후 해결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제=곽태기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60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대표전화 288-9700 업무국 FAX 288-9703 편집국 FAX 288-9704

Table with 4 columns: City, Phone Number, and other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branches of the newspaper.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괄난 항의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연조 16년(1633)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이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뒷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 때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구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로 되는 문화재 중 하나도 손꼽히고 있다. (출처: 문화재청 제공)

전주매일 캠페인